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서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비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디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 nmaum

# 내모습 내아픔 아닌것 하나 없어

여러 부처님들과 더불어 한자리를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불교란 어느 한군데 국한돼 있는 게 아닙니다. 불교란 일체 만물만생의 생명이자 근원입니다. 살아있는 생명 모두가 '불'이라면 우리 생활은 '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불교란 머리끝은 사람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불자들만 하는 게 아니고 가톨릭이나 개신교나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모두 다 하는 공부입니다. 물에서 놀든 들에서 놀든, 인간으로 뉘든 모두 이미 불교 속에서 살고

차만발의 생명과 모습과 의식들이 있는데 어떻게 물 한 잔을 마셔도 내가 마셨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작용을 했다고 할 수 있으며 내가 봤다고 할 수 있으며 내가 들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거 했을 때 내가 했다고 하였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모두가 더불어 함께 살고 있는 존재로서 정신계와 물질계가 통비가 되어 여여하게 돌아가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그 여여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은 나와 내가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 둘이 하나가 되면 스스



그림 · 최주현

## 살아있는 생명은 모두 '佛' 우리 생활은 '教' "땀어진 인연 나와 둘 아니라고 생각 하세요"

서 입력이 됐고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입력이 되고 그것이 순간순간 현실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업보라든가 번뇌라든가 고(苦)라든가 하는 문제를 없애는 데는 나오는 구멍에다 다시 입력을 해라, 만약에 나오는 자리에 새로운 것을 입력한다면 앞서 입력된 건 없어지게 되고, 그 구멍 부에는 절대로 그것을 지울 수가 없다 이겁니다.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의식이 자동적으로 흘러 나오는 건데 내가 그러는 줄 알고 속아서 마음에 분심을 품고 원망을 하고 탓을 하게 되는데 잘 생각

하셔야 될 줄 압니다. 그러니 모두가 그저 나의 진실한 마음,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는 마음, 또는 부처님을 섬기되 부처님과 나와 둘이 아니게, 형상도 내 형상이요 마음도 내 마음이요 생명도 둘 아닌 내 생명이요, 모두가 높이 보지도 말고 낮게 보지도 말고 나와 같이만 보시라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을 데리고 길을 가시다가 배 한 무더기를 보시고, 거기다가 절을 하셨습니다. "사생자부이신 부처님께서 어찌 하찮은 이 배 무더

기에다 절을 하십니까?" 하고 여쭙으셨다. 그랬더니 "내 할아버지 수도 있고 할머니 수도 있고 어머니 수도 있고 아버지 수도 있고 형제들 수도 있는 나라" 이렇게 대답하시더군요. 그게 무슨 뜻이나 하면 미생물에서부터 수억 겁 광년을 거치면서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형제가 되고 이러면서 사람까지 왔기 때문에, 넓게 본다면 내 어머니 아닌 게 없고 내 모습 아닌 게 없고 내 자식 아닌 게 없고 내 마음 아닌 게 없고 내 도량 아닌 게 없고, 모두가 같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 육의 부모만 내 부모가 아니라 '진체다' 이겁니다. 구름이 한데 모였다가 흩어지고 흩어졌다 모이듯 인생의 한 철이 꼭 지금의 이 모습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돼지라도 나무시키고 작부라도 나무시키고 여자 남자를 돌로 보지 않고 어떠한 생물로도 나무시켰습니다. 그렇게 나무시키는 까닭에 부처님이라는 이름이 붙었죠. 왜냐? 그렇게 나무시키는 데 어떤 거 했을 때 내가 봤다고 할 수 있으며, 어떤 거 봤을 때 내가 봤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천차만별로 나무되어 화합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여러라고도 하고 부처가 없는 부처가 진짜 부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부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진 것도 없고, 현재도 공했기 때문에 여여하게 여러분들한테 그 뜻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열반을 했다고 할 것도 없고 지금까지 이렇게, 아니 지금 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도 끝간데 없이 그렇게 하실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일불이니까요.

### 자성불을 믿어보세요

우리의 모습은 망망대해에 배 띄운 것과 같고, 이 배 안에 들었을 때는 한발짝도 때려놓을 수 없죠. 또 지구라는 공기주머니에서 한발짝도 벗어날 수 없고 말입니다. 그러나 통 속에선 통을 굴릴 수 없지만 통 밖을 빠져나왔을 땐 통을 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체가 없기에 우주 삼천대천세계를 맘대로 행하며 행함없이 행하는 도리가 있습니다. 또 일체 만물만생하고도 가설이 돼 있어서 참나찰나 나무면서 같이 응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될 수 있는 부처님들이십니다. 다 갖추어져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 모습이 난 줄 알고 속아서 헤매기 때문입니다. 모습이 내가 아닙니다. 모습은 나의 주인의 심부름꾼 밖에 안됩니다.

지금 불교나 개신교나 가톨릭이나 어떤 종교를 막론하고 바깥으로 기도를 합니다. 상대를 보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당에 들어가면 그 형상을 믿지 말아라 이런 뜻은 아니고 부처님 형상과 내 형상이 둘이 아님을 안다면, 예불을

18면으로 계속

### "미생물부터 수억겁 광년을 거치면서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형제가 되면서 사람까지 왔으니 모두 둘이 아니지요"

있습니다. 풀 한 포기만 살아 있어도 불교는 살아 있는 것이고 우리 살아가는 생활 자체가 진리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체가 없는데 너의 몸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이 지구라는 공기주머니에서도 벗어날 수가 없다고요. 지구라는 공기주머니, 이것을 버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버스를 타고서는 한발짝도 바깥으로 나갈 수 없으면서도 버스가 어디로 도는 줄도 모르고 그 안에서 네 자리 네 자리 하고 싸우고 한마음이 되질 못합니다. 맺어진 인연들에 대해 항상 나와 둘이 아니게 생각하고 내 도량 내 아픔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부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실천하는 거라고 봅니다.

### 무엇을 내가 했다고 할까

또 정신계와 물질계가 합쳐져 둘이 아니게 돌아가야 할텐데도 항상 나라는 육신에만 집착하여 한쪽을 무시하기 때문에 통비가 되질 않습니다. 실은 내가 했다, 내가 벌었다, 내가 망했다, 이렇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지만 내가 한 바가 없습니다. 함이 없이 그냥 하는 게요. 어떠한 경우에도 이 몸통이를 두고 진짜 나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단지 이 몸통이는 생명들의 집합소일 뿐입니다. 말하자면 승객을 가득 태운 배와 같은 셈이지요. 그러나 무엇을 내가 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내 몸 안에도 천

로 여여하고, 여여한 줄 안다면 갖춰가지고 있음을 알며, 또 갖춰가지고 있는 걸 안다면 걸림없이 들이고 낼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못났든 잘났든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 내 나무는 내 뿌리부터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내 뿌리에 의존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근본을 믿는 겁니다. 자(自)불이라고도 하고 뿌리라고도 하고 불성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만 근본은 누구나 다 하나인 것입니다. 그 근본에는 우주 삼천대천세계의 일체 만물만생과 더불어 일체제불의 마음도 모두 직결이 돼 있습니다.

### 부처님형상과 내형상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이 몸통이가 나다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가령 자동차에 비유한다면 육신은 차체가 되고 내 뿌리인 참나는 운전사가 되는 셈이니 겉대기를 믿지 말고 운전사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운전사를 믿고 의지해야 이쪽 차, 저쪽 차가 다 제대로 굴러가지 겉대기를 믿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내 운전사를 믿을 일이지 스님네들의 고깃덩이를 믿어선 안 됩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정수에 자동적인 컴퓨터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현대 용어로 쉽게 말하는 겁니다. 자동적인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중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

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중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중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여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역의 특을

### 생활속의 불교 143

## 갈채받는 명배우가 되기 싫다?

"영화배우가 연기하는 것을 보라. 비록 하찮은 역할을 맡더라도 정성을 기울여 열심히 하지 않겠는가. 인생살이도 그와 같아서 누구나 역할을 받아가지고 나왔다가 한철 연기를 하고 가는 길이나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된다. 잘 난 배우이든 못 난 배우이든, 주연이든 조연이든 배정받은 대로 열심히 하기 위해 세상에 나온 것이다."

극 중에서 주어진 역할을 실감나게 소화해 내지 못하는 배우에게 박수를 치는 사람은 없다. 어떤 역할이 되었든, 주연급은 주연급대로 조연급은 조연급대로 현실 방침에 잘 해낼 때에 비로소 시청자들은 진한 공감을 느끼고 그 배우의 연기를 오래도록 기억해 준다. 그리고 그 배우에게 부와 명성이 주어진다.

비록 하찮은 역할을 맡았다해도 혼신의 힘을 쏟아붓는 연기자라면 그때에 '뜨는' 계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고, 실사 주연급으로 발탁되었다해도 배역을 소화해 내지 못하면 장차 탈락하는 수모를 감수하게 될 것이다. 고로 배우라면 누구나 극 중의 역할이 무엇 이든 최선을 연기를 하려고 노력한다.

임금역이든 거지역이든 그것은 한때의 배역이다. 평생을 임금역만 하고 평생을 거지역만 하는 경우란 없다. 역할은 그때 그때에 맞춰 주어지는 것이고 무대는 계속 바뀐다. 배우들도 제게 부여된 역할이 한때의 일인줄을 안다. 그러기에 배우라면 누구나 좀 더 다양한 역할을 맡아보기 위해, 좀 더 중요한 배역에 쫓겨가기 바라며 지금의 역할에 맘을 쏟는다. 그러나 만일 어떤 배우가 제게 주어진 역이 조연에 불과하다하여 열심히 연기할 생각을 않고 불평만 늘어 놓는다면 어떻게 될까. 그는 분명 코 객석의 여유에 시달려야 할 것이고 마침내는 무대에서 끌려 내려오게 될 것이다.

인생살이도 그와 다르지 않다. 우리는 누구나 각자의 역할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연기를 하고 있는 중이다. 잘 난 사람은 잘 난 사람대로 못 난 사람은 못 난 사람대로, 높든지 낮든지, 부유하던 가난하던 제 배역을 제가 소화해내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무대는 바뀐다. 평생을 같은 역만 하라는 법이 없고 세세생생 되풀이해서 동



일하게 배역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지금 이 무대에서 어떤 내용의 연기를 하느냐에 따라 배역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때로는 내 취향대로 골라 잡을 수도 있다.

태어날 때 받은 역할은 내가 물어둔 마음의 씨앗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번 먹은 마음이 씨앗이 되어 나무로 자라고 거기서 열매가 익어 다시 씨앗이 되는 업(業)의 바퀴돌이가 오늘 나에게 이같은 역할을 하게끔 이끈 것이다. 고로 나의 배역은 내가 고른 것이요, 요다음에 내가 맡을 역할은 오늘 내가 예비해 둔 것이 된다.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르고 취한 것이다. 배역을 담당하는 연출가는 바로 자기의 마음이다. 하느님도 아니고 신도 아니며 부모도 아니다. 조직이나 단체의 장(長)도 아니고 동료나 이웃도 아니다. 내가 내 인생의 연출가가 되어 자신에게 역할을 맡기고 있는 것이다.

이 세상의 수 많은 사람들, 그들의 배역은 자기가 결정한 것이다. 이 세상의 살아만들, 그것의 변화하는 모습들은 다 제속에서 나온 것이다. 말하자면 존재하는 모든 것은 변화의 싸이클을 자기가 만들고 제 모습을 자기가 꾸며준다.

고로 누구라도 더 좋은 배역, 더 중요한 배역을 원한다면 지금 맡은 역할에서 마음을 1백% 쏟아 붓는 멋진 연기를 해야만 한다. 더 좋은 배역이라는 열매를 거두기 위해 지금 마음의 씨앗을 심어야 함은 불변의 법칙이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삶, 살아있다는 것은 곧 약속이다. 머무름이 아니라 쉬지 않는 움직임이다. 웅덩이에 핀 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이다. 그러므로 살아있다는 것은 약속하는 삶에 담겨져 있는 기쁨을 맛보는 일이나 다름없다. 명배우에게 보내지는 갈채와 같은 것이다. 그러나 배역에 충실하지 않는 것, 즉 지금의 역할에 소홀하고 게으른 것은 자기에게 주어질 약속의 기쁨을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자 내일의 다른 배역, 더 나은 배역을 포기하는 일이다.

지금 내 역량을 1백% 쏟아붓지 않는다면 그 나머지로 무엇을 하려는가. 참다운 일에 나뉘므로서 어느쪽에서도 만족을 얻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려는가. 그것이 고통인 줄을 곧 알게 될텐데?

협찬: 김창배